

# 주행 능력 향상에 경제성까지...SUV 올해도 잘 나간다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뉴쏘렌토

자동차 판매 감소에도 나홀로 질주  
지난달 4만8000대 팔려 23% 증가  
현대·기아 중대형 싼타페·쏘렌토 등  
유명 브랜드 변경 모델 잇따라 출시

스포츠크로스(SUV) 시장 경쟁이 뜨겁다. SUV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완성차 업계가 신차를 출시하며 소비자 공략에 뛰어들었다.

◇SUV가 '효자' =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SUV 판매량은 4만8364대(41.4%)로, 전체 판매된 국내 승용차(11만6769대) 중 가장 많았다. SUV는 지난 국내 승용차(경형·소형·중형·대형·SUV·CDV) 중 판매량이 유일하게 늘어난 차종으로, 판매량의 경우 1년 전(3만9337대)에 비해서는 22.9%, 전달(3만3526대)에 비해서는 44.3% 증가했다.

국내 SUV 차량은 올 들어서도 1월(3만4755대), 2월(3만3526대), 3월(4만8364대) 등 모두 11만6645대(39.0%)가 팔려나갔는데, 같은 기간 국내 승용차 판매량 29만 8804대 중 가장 많았다.

소형SUV(코나, 스톨닉, 쏘울, 니로, 트랙스, 티볼리, QM3) 등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대형급 SUV인 싼타페, 쏘렌토 등이 출시되면서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자동차업계 분석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SUV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미국 현지 판매량은 총 11만2185대로, 1년 전(11만8694대)보다 6% 가량 감소한 반면, SUV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현대차는 25%, 기아차는 15% 각각 늘었다.

◇SUV, 우리가 최고 = 국내 완성차 업계 뿐 아니라 수입차에서도 새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형 SUV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4세대 싼타페로 중형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싼타페는 커진 차체, 향상된 주행 능력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달 신·구형을 합해 1만3076대가 팔리며 국내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아차는 2년 연속 국내 SU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쏘렌토의 '더 뉴 쏘렌토 넘버원(No.1) 에디션'을 지난 2월부터 새롭게 내놓고 시장 수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쏘렌토는 싼타페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0.1% 증가한 6965대(3월)가 팔렸다. 기아차는 지난해 7월 선보인 '뉴 쏘렌토'와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대를 돌파한 스포티지 등으로 'SUV' 명가임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푸조가 '푸조 2008 SUV', 'New 푸조 3008 SUV', 'New 푸조 5008 SUV' 등에 대한 무이자 할부, 오디오 시스템 무료제공, 서비스 보증기간 연장 등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시트로엥도 4월 콤팩트 SUV인 C4 각투스 샤인(Shine)을 중심으로 서비스 보증기간(3년→5년) 확대, 무이자 할부 등으로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었고 인피니티도 지난달 7인승 SUV 'QX60'의 전륜 구동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공략에 나섰다. 재규어는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인승 콤팩트 SUV인 E-PACE 사전계약에 들어간 상태로, 스포츠카의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4륜 구동 모델로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푸조



재규어 'E-PACE'

## 현대차 세계 최초 소형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공개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를 선보였다.

현대차는 최근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18' 박람회에서 소형 SUV '코나'의 전기차 모델, '코나 일렉트릭'(사진)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1회 충전에 406km를 달릴 수 있어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주행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 소비자들을 위해 기본 모델보다 350만원 산대신 1회 충전 거리가 254km로 짧은 '라이트 패키지'도 운영, 선택 폭을 넓혔다.

배터리 충전 시간(64kWh 배터리 기준)은 100kW 급속 충전에 54분, 7kW 완속 충전에 9시간 35분(현대차 자체 측정값)이 소요된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안전장치가 기본 적용됐다.

코나 일렉트릭의 가격(64kWh 배터리 기준)은 세부모델별로 ▲모든 4650만원 ▲프리미엄 485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국GM 윈스톰 등 국내외 33개 차종 6만9000여대 리콜

BMW·아우디·미쓰비시  
스포일러 볼트 결함 등 발견

한국GM의 윈스톰을 비롯, 국내외 33개 차종 6만9000여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9803대의 제작 결함이 발견,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GM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

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 뒤에 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320i 등 12개 차종 1만5802대는 에어컨 및 히터 송풍량 조절기와 커넥터의 연결 결함으로 강한 바람 작동 시 연결 부품 과열로 화재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아우디 Q5 35 TDI 콰트로(Quattro) 등 6개 차종 573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 절차 중 후부 반사기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절차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종류 여부를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다.

국토부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링컨 MKZ 등 3개 차종 322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KZ 등 2개 차종 3221대는 조향핸들을 조향축에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조향핸들이 이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규어 XF 등 9개 차종 3262대 2가지 리콜을 진행한다. 재규어 XF 등 8개 차종 322대는 고압 연료레일 끝부분 용접 결함으로 연료가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 E-페이스(PACE) 4대는 앞 브레이크 호스 고정장치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 파손, 브레이크액 누유로 제동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미쓰비시 RVR 143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부품 결함으로 우천시 와이퍼 미작동으로 인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초소형 자동차 배기량 250cc·최고속도 시속 80km 이하

국토부, 기준 새로 마련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초소형 자동차 생산 촉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경차 안에 신설되는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 출력 15kW 이하)로 길이(3.6m)와 높이

(2.0m)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경차 1.6m)로 구분했다.

차량 중량은 600kg 이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새 분류 체계에 따르면 초소형차에 포함될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 등으로,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중앙동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탕·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  
대표 김병환 ☎062)233-3636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롤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중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월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현,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인구 맞은편)  
빙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빙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천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